

우 리 의 당 면 과 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를 참가하고…

- ◇…… 한마디로 이번 대의원총회는 역사적으로 급변하는……◇
- ◇……치과계의 몇가지 문제점을 특이하게 나타낸 모임이……◇
- ◇……었다. 치과계가 당면한 당면했다기 보다는 만원 빠……◇
- ◇……스에서 발 디딜 여유가 없음을, 나아가서 질실사 직……◇
- ◇……전임을 직감하고 통감한 시대의 조류를 탄 총회라고……◇
- ◇……보아야 할 것 같다. ……◇

첫째로 신현확보사부장관은 원고없는 치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적나나하게 치과계를 속속들이 들여다 본 듯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즉 현 시점의 치과의사협회는 자율적인 의미에 있어서 조직을 강화하여 국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아울러서 정부와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자율적 조직을 재확인하여야 하며 재검토 재고려하여야 할 시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해 준 것이다. 신 장관은 그 일례를 들어 의료인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지 않은 사회계층의 사람보다도 더 구속,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고 의료인 전체에 각성을 촉구시킨 것이다. 이것은 의료계에서 특히 치과의료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신차리고 손을 써야할 일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담당장관의 담화가 이처럼 명확하고 뼈를 깎는 듯한 충고를 받고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며 스스로가 방관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변을 당해도 어디 가서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느낌마저 든다.

둘째, 대의원총회가 양상이 변천되어진 듯한 느낌이다. 즉 “공개석상에서 토의를 하면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이상 거론하지 말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면서 회의가 진행되어 갔다. 다시 말해서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잠음없이 부작용

없이 추진하자는 데에 공감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우리 치과계에도 일종의 비공개회의의 일면을 보여 주었고 진정 발전하려는 의도에 편승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토론치 않고 넘어간 항목은 바로 우리 치과의사면 누구나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것이며 자신의 권익이 침식당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시일이 지나면 나타날 것으로 추측되어 진다. 모쪼록 담당자들의 노고와 활동을 바라며 어느 누구도 그들의 일에 발 벗고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 임무를 띤 사람에게만 맡겨서 방관하는 태도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집행부에 대한 신랄한 질의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들의 결석으로 백빠진 총회광경인 듯한 느낌도 주었다. 그리고 회원들의 협조 특히 회비나 기금에 대한 비협조가 빙산처럼 도사리고 있는 한, 아울러 돈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장내는 조용해지기도 했다. 돈의 필요성을 노골적으로 나타내 주었다. 또 전임 회장단이 피력한 중점사업의 정결과 그 결과를 추궁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적연치 못한 점이 많았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모종의 공개토론을 피하고 넘어간 항목에 대하여 전 집행부와 신집행부의 연결이 물과 기름의 관계와 같이 되지 않도록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네째, 대의원총회에서 전격적이고 가공할 만

잘 살기 운동에 핵심은 뭘 있다.

상임편집위원 이 병 태

금의 협회사업이 펼쳐진 것이다. 10억원 달성 기금 확보운동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 이 유인 즉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 국이 어느 누구도 생각못했던,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반신반의 하는 국민을 이끌 고 새마을 유신사업으로 이 국가를 중진국의 대 열에 끼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국가적 추세에 부응못하는 우리 치

과제에 대하여 변의장은 역부족으로 더이상 늘릴 수 없는 지경에 까지, 배수의 진까지 무너진 상 태임을 역설했고 약자의 비명은 결코 미덕일 수 없음을 심각하게 토로하였다.

회의가 진행되어 의장의 제의로 통과되면서 변 의장 자신이 우선 10만원을 납부하겠다고 공식 석상에서 확약했다. 이것은 5개년 또는 일정한 기 간을 두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연적인 일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약하고 비약하려면 단합된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은 돈과 직결된다는 점에 우선 돌파구를 열어 놓은 것으로 알아야겠으며 전국의 회원은 혼연코 참여하여야 할 거사라고 믿어진다.

새 시대의 신 기원을 이룩하려는 것은 치과의사 우리의 지위향상과 실감나는 이야기로서 우리가, 나아가서 후진이 보다 잘 살기 운동으로, 실현 내지는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현세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숙명을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지 아니하면서 남이 우리를 위하여 법의 제정이나 행동을 실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망상적 꿈이며, 그러한 행운이나 막연한 기적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치과의사 몇몇이 모여 기금을 확보한 모임도 그 수가 적지는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치과의사가 치과의사모임이 아닌 곳에서는 성금이나 기부를 잘 하는데 유독 자기가 속한 단체에는 인색해 온 것이다.

단 혁명적인 거사나 한 눈에 뜨이도록 단숨에 나타나는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약을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과거를 탓하기 보다는 현실에서 장벽을 뚫고 나가야겠다.

또 성장하고 있는 후진을 위하여... 선배들의 과거를 더욱 빛내주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너, 나, 그이 할 것없이 더 이상 아까운 나날을 보낼 수 있어서 안될 시기라고 절실히 느껴진다. 진정 이러다가는 치과의사의 존재가 치까지 없어질지도 모르는 급박하고 절실한 시기가 아니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10억 모금 운동은 그 모금방법과 기간에 대하여 철두철미한 계획이 조속히 선행되어야겠고 분명히 성취될 날을 향하여 매진하 여야 하겠다.